

“이보다 좋은 한우 없어” 전국서 상인 몰려

추석 앞둔 강진우시장 가보니

강진원 군수 취임후 한우개량...1등급 비율 크게 높여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거래 투명...출하·구매자 북적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요즘 강진 우시장을 방문해 보면 강진군 한우산업의 인지도를 짐작할 수 있다. 강진완도축협이 운영하는 강진우시장은 강진전통시장과 같이 매월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5일장인데, 장날이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한우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강진우시장은 새벽 3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해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 6시가 되면 절정에 달한다.

지난 4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한우산업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우시장을 방문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은 그동안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한우개량이나 생산비 절감 등 생산분야의 노력이 한우산업의 ‘줄기’라면, 활발한 유통은 한우산업의 ‘꽃’이다. 우리는 ‘줄기’와 ‘꽃’이 조화를 이루으로써 한우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에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진군은 강진원 군수 취임 이후 한우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보강하고, 한우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해 육질 개선과 혈통 좋은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개량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정액공급 등 한우등록에서 선발, 도태까지 12종의 개량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2012년 말 61%에 불과했던 1등급 이상 평균 등급률이 2015년말 69%로 향상됐고 올해 말까지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 지정 육종농가 3농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진군은 또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4개소와 조사료 유통센터 등의 국비 공모사업을 유지하고,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3000여ha, 국내산 조사료용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등 13종의 사업을 지원해 사료비 30% 절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유통부문에서는 ‘강진착한한우’브랜드 등록 및 ‘강진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 ‘착한생산’, ‘착한품질’, ‘착한가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강진읍내에 강진한우명품관을 개장하고 인터넷 소팔몰 입점과 인터넷 전문 마케터 등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를 공략하는 등 강진완도축협과 연계, 연간 1000마리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4일 새벽 강진우시장을 찾아 한우산업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의 한우산업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강진우시장에는 인근 장흥, 보성, 완도, 해남 등의 농가들과 상인들은 물론이고, 담양과 장성, 광양시 등에서도 소를 출하하고 구입하며, 멀게는 수도권지역에서도 고기소나 송아지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날 고기소를 구입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 방문했다는 식육업자 김병렬씨는 “전국의 우시장을 돌아다니며 소를 구입하지만, 강진우시장만큼 출하량이 많고 좋은 소가 나오는 곳은 드물

다”고 극찬했다.

강진완도축협 홍재봉 상무는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돼 거래가 투명해짐에 따라 출하자나 구매자의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다, 강진군의 한우산업에 대한 투자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육질 좋은 소의 출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혈통우 경매시장이 개장될 만큼 좋은 송아지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인근 지역축협에 미안할 정도로 강진우시장의 거래량이 많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군 대불하수 슬러지처리 연료

재생에너지 사용 시범사업 최종 확정

영암군은 “대불하수 슬러지 처리과정 에 필요한 보조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해 대불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슬러지처리 과정에 필요한 보조연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범사업에 최종 확정돼 보조연료를 앞으로 매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최종 처분하는 시설로, 그동안 LNG를 보조연료로 사용해 보조연료비만 매년 6억원 이상 소요됐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조 연료비로 1억원 이하의 재원만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6개월간의 재생연료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영암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환경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뚝 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영암=전봉헌기자 jbh@

장흥군 저소득층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장흥군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자활근로에 참여 중인 조근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원스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25만원씩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40만원씩 6개월간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취업 성공시엔 3·6·12개월 단위로 취업성공수당도 제공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 대덕 ‘어머니 교실’ 50명 영화관 나들이

장흥군 대덕읍(읍장 김장용)은 “최근 ‘100세 시대! 어머니 교실’ 영화 보는 날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100세 시대! 어머니 교실’은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3시간씩 배움을 열기를 간직한 어르신 50여명에게 한글교실, 노래교실 등을 열어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화 보는 날은 평소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문

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영화 보는 날 행사에서는 정남진여행사(대표 김형식)에서 무료로 이동 버스를 지원했다.

김장용 대덕읍장은 “지역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문화생활을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폭염과 가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작은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축산협동조합 1천만원·물축제위원회 2천만원…

장흥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줄이어

장흥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장흥축산업협동조합과 장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위원회, 회진면 이륙회 등이 각각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했다.

장흥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문흥기)은 지난 1일 장흥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 양성에 보태 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복)는 성황리에 마무리된 올해 축

제의 체험프로그램 수입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냈다.〈사진〉

회진면 이륙회 회원들도 정성스럽게 모금한 700만원을 군인재육성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130억원의 장학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7억원을 들여 장학선 선발 지원, 중학생 관내고 진학 지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성적우수 학생 해외비전캠프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의 밝히는 중요한 일”이라며 “참여한 기관과 단체에 감사



하고, 기탁하신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16개 실과소 추진상황 보고회

영암군은 지난 2일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2017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추진상황 보고회는 16개 실과소, 44개 팀장이 참석해 1차 보고회 대비 지표별 실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합동평가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을 한해, 국가위임사무를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32개 시책, 173개 세부 지표로 구분해 평가를 한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영암군은 2014년 기준 보건위생·지역경제·중점과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상담 후 결정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곡성, 농가 전원 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청풍동, 임야

- 북구 청풍동 산272번지
- 2339평, 신촌마을 부근
- 인근까지 차량통행 가능
- 시세 3천만원
- 매매 - 1500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북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장성, 전원주택지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나주, 근린주택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좋은
- 매매 - 5200만원

장성, 서삼면 농지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1억 3천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99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